



국내 물류비 90조원으로 GDP의 12.5% 달해

내륙수송비가 69조원으로 전체의 77% 차지

지난 2003년 한해동안 국내에서 운송과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활동에 들어간 비용이 90조 3,45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물류를 포함하면 112조 1600억원으로 GDP 대비 15.5%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물류비 산정 결과에 따르면 2003년 국가물류비는 2002년(87조320억원)보다 3.8% 증가했다. 그러나 GDP 대비 비중은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항목별로는 국내 수송비가 69조4,700억원으로 전체 물류비의 76.9%를 차지했다. 재고유지관리비가 15조2,910억원(16.9%)으로 뒤를 이었고 포장비(2조120억원), 하역비(1조2,570억원), 일반관리비(1조1,760억원), 물류정보비(1조1,390억원) 순이었다.

국가물류비에 포함돼 있는 물류활동 부가가치는 총 55조6,330억원으로 총물류비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대비 6.1% 증가해 물류부가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물류비 가운데 국제물류비중은 2000년 18.1%에서 2003년 19.5%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업활동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단위물류비(톤당 처리 비용)는 5만1,845원으로 전년보다 7.7% 낮아졌으며, 1톤의 화물을 1km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단위수송비는 479.1원으로 2.6% 감소했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국내물류활동의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8.3%로 물류비 증가(4.4%)및

GDP증가(5.1%)보다 높아 물류산업이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연계수송기능을 강화하고 철도·해운 등 대량수송체계를 활용,수송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부 중국 양산항 개장 대비 대책 마련 추진 전문가, 관련업단체 관계자 등과 워크숍 개최

상해 양산항 개장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이 11월14, 15일 양일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부산·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동북아 해운항만 여건변화, 상해 양산항 개발현황과 중국의 항만정책, 세계 해운항만물류 변화 동향 및 양산항 개장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워크숍에서는 특히 상해 양산항의 개장이 중국의 경제성장 및 수출입 물량증가와 우리나라 항만의 여건 및 대응전략 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각국의 물류중심 축진전략과 갈수록 대형화하는 선박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항만개발 사업과 화물유치 방안 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해양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11월21일 해운항만업·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9월 상해에 KMI연구원을 파견해 대비책을 마련해 왔으며 11월7일에는 보고회를 개최했다.